



# 정책현장탐방

• 맞벌이 가정의 행복을 지원하다 : 시흥시 워킹맘 · 워킹대디지원센터

## 맞벌이 가정의 행복을 지원하다: 시흥시 워킹맘 · 워킹대디지원센터

여성가족부는 2015년 전국 6개소의 「워킹맘 · 워킹대디지원센터」를 지정하고, 시범운영을 시작하였다<sup>1)</sup>. 「워킹맘 · 워킹대디지원센터」는 맞벌이 가정의 원활한 일 · 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가족상담 및 생활 정보 제공, 부부 및 육아교육, 직장 고충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. 시흥시 워킹맘 · 워킹대디지원센터는 2015년 4월에 개소하였다.



박성희 센터장

일 · 가정 양립은 개인, 기업, 국가가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것. 제도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.

일시 : 2015년 12월 24일(목) 14:00

장소 : 시흥시 워킹맘워킹대디지원센터

인터뷰 대상자 : 박성희 센터장

### 워킹맘 · 워킹대디 사업을 시작하신 특별한 동기가 있나요?

오랜 기간 청소년 상담을 해오면서 느낀 점은 아이들의 문제행동은 적절한 지원과 시기가 되면 잦아드는 데 반해, 이들이 가장 밀접하게 관계를 맺으며 생활하는 환경 즉, 가정과 부모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가정 내 내재된 부부문제나 자녀양육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외부의 어떠한 해결책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이 목격하였습니다. **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**는 생각에 가족지원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.

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족교육, 가족문화 프로그램 및 부부 상담 등 가족관련한 서비스에 대해 맞벌이 가정의 욕구가 높았고, 여러 면에서 제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

<sup>1)</sup> 기존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개소된 워킹맘워킹대디지원센터는 2015년 4월 당진시를 시작으로, 구미시(5월), 시흥시(4월), 연제구(6월), 울산광역시(7월), 성남시(7월) 등 전국 6개 지자체에서 운영을 시작하였다(여성가족부(2015), “맞벌이 부부를 도와 줄 「워킹맘워킹대디지원센터」 첫 개소”, 보도자료, 2015.4.23.).



다. 특히 야간 상담과 주말 프로그램의 확대 등 맞벌이 가구의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 전략이 필요했습니다. **맞벌이 가구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자 워킹맘 · 워킹대디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.**

## 시흥시 워킹맘 · 워킹대디지원센터에 대한 소개와 그 간의 운영실적은 무엇인가요?

시흥시 워킹맘 · 워킹대디지원사업은 2015년 여성가족부 시범사업으로 전국 6개소 중 1곳으로 지정되어 4월부터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. 워킹사업팀은 사업전담인력 1명과 사업보조인력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2명만으로는 사업진행의 어려움이 많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직원들이 많이 도와주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
워킹맘 · 워킹대디지원사업은 크게 **직장생활지원, 가족생활지원** 부분으로 나뉩니다. 직장생활지원사업으로 4월부터 야간상담 및 주말상담을 운영하여 맞벌이 가족의 참여를 지원하고 있으며, 이를 위해 15명의 전문상담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. 6월부터 시작된 **직장고충상담**의 경우, 노무사와의 연계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고, **한부모 자조모임, 맞벌이부부자조모임 및 공동활동지원**을 통하여 일하는 엄마 · 아빠들이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지원하였습니다. 또한 현재 2개의 기업에 찾아가는 근로자상담실을 운영 중입니다.

가족생활지원에서는 임신 · 출산 · 자녀양육상담 및 생활정보제공, 생애주기별 자녀교육 및 가족관계 개선교육 등 다수의 일하는 엄마 · 아빠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**맞벌이 가족캠프, 워킹맘워킹대디힐링워크숍, 슈퍼대디가사교실, 분노치유프로그램, 부모역량강화교육**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및 진행을 하였습니다.

개소 이후 현재까지 약 500회기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, 약 18,000여명이 참가하였습니다.

## 센터의 프로그램 중 참가자의 호응이나 만족도가 가장 높은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? 또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가 높은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?

가장 호응이 좋았던 프로그램 중 하나는 ‘워킹맘 · 워킹대디 가족의 날’ 사업으로 ‘가족사진퍼즐맞추기 대회’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. 5회 차까지 진행된 이 프로그램에 총 196가족 552명이 참여하였으며, 가족사진을 퍼즐로 제작하여 행사당일에 온가족이 모여앉아 가족사진퍼즐을 맞추는 행사로 이루어졌습니다. 아동기 및 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족,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된 가족 등 다양한 연령대의 가족이 함께 어우러져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인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. 무엇보다 평소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한 맞벌이 가족들이 행사당일 모여앉아 퍼즐을 맞추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, 협동할 수 있

는 계기가 되어 더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.



가족캠프 참가자



부모교육 과정



3차 워킹맘워킹대디 가족의 날



2015년 퍼즐로 보는 센터사업

**센터 운영을 통해 체감하는 맞벌이 가구의 실질적 어려움은 무엇이었나요? 특히 일하는 여성이 느끼는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센터의 지원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요?**

맞벌이 가구가 경험하는 어려움 중 가장 큰 부분은 **자녀의 돌봄 해결과 진로문제**입니다. 저학년 아이의 방과 후 돌봄과 방학기간 중 식사 해결을 위해 학원을 보내는 사례가 많았으며, 늦은 퇴근 후 가사 일에 대한 부담으로 반찬지원을 해주느냐는 문의도 종종 있었습니다.

초등 자녀의 방과 후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녁 여덟시까지 **공동육아나눔터를 활용한 놀이·인성 교육 프로그램이나 숙제지도 프로그램**을 운영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, 올해는 이용자의 욕구분석을 위한 시범기간으로 운영 중입니다. 이 같은 센터 내 사업 인프라와의 결합 프로그램 개발은 추후 타 워킹맘워킹대디지원 센터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.

또한 대부분 맞벌이 부부의 경우, 부부가 같이 경제적인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의 가사노동 및 양육활동 부담 정도가 여성이 월등하게 높은 상황입니다. 실제 센터에서 시행하는 부모역량 강화교육 참여자 역시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자녀양육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어머니



들께서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. 이러한 여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‘워킹맘 힐링캠프’를 진행하여 워킹맘들이 1박2일 동안 가정에서 벗어나 아내나 엄마가 아닌 나를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. 인기가 많은 문화프로그램의 경우, 아버지와 아이가 함께 참여하도록 기획하여 아버지가 아이의 양육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.

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, 의사소통 부재로 인한 관계악화를 겪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. 부부워크숍 및 부부상담을 진행하여 맞벌이부부의 소통교육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이해제고를 돕고, 리마인드칭혼을 기획하여 평소 바쁜 일상으로 마음을 나누기 힘들었던 맞벌이부부에게 서로를 다시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였습니다. 이와 같이 센터는 워킹맘을 위한 지원과 남성의 가정생활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가정 내 평등한 부부관계 형성 및 원활한 일 · 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
**맞벌이 가정에 대한 지원은 가족 대상 서비스 이외에도 양성평등 문화 확산, 기업 내 가족친화 분위기 조성 등 사회적 변화가 동반되어야 합니다. 이를 위해 지역 유관기관(예, 기업체, 지자체 등)과의 협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?**

저희센터에서는 먼저 재)시흥시산업진흥원과 시흥시기업인협회, 한국노총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를 연계하고자 하였습니다. 또한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근로자들을 위한 직장고충상담실을 운영하였으며, 삼립식품 및 롯데마트 시화점과의 연계를 통하여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. 지역 내 대기업의 경우 다양한 프로그램 및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상황인 반면,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협력체계가 필요함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자원 부족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또 영세사업장의 경우, 가족친화 기업문화의 필요성조차 인식하지 못해 제도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양성평등 및 가족친화문화 확대를 위해 더 많은 기업체 및 기관과의 연계를 계획하고 있으나, 아직은 분위기가 성숙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 고민을 더 해야 할 부분으로 남아있습니다.

**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추세에 있어 향후 워킹맘 · 워킹대디센터의 역할이 중요할 텐데요. 본 센터 사업이 어떤 부분으로 확대가 필요할지, 또 역할 확대를 위해 보완되었으면 하는 제도적 지원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?**

여성의 사회참여 욕구가 높아지고, 남성의 외벌이만으로 가정을 꾸리기가 점차 어려워지는 시점에서 저희 워킹맘·워킹대디지원사업이 일-가정양립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해야할지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. 가장 큰 문제점은 가사 및 돌봄 부담이 여전히 워킹맘들에게 편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.

여성의 '가정과 일의 이중부담' 완화를 위해서 개인과 가족, 지역사회 차원의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. 프로그램 내용에 가족의 가치와 양성평등의 가치를 담을 수 있는 요소들을 적절히 포함하여 '**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닌, 우리가 해야 할 일**'이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.

또한 지역 내 유관 기관 및 기업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'**일·가정 양립의 문제가 개인이 아닌 사회의 문제**'임을 환기시키려 노력할 것입니다. 지역 사회의 유기적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센터 차원의 노력 뿐 아니라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체계도 필요합니다. 이를 위한 공식적 협력체계 모색 등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으면 합니다.